

금연 담배

황 신 봉

경주시 건천읍
모량초등학교 2-1

우리 엄마 아빠는 담배 때문에 싸운다. 아빠는 가게에 가서 담배를 사오라고 하고 엄마는 가지 말라고 한다.

엄마 말 듣고 안 가면 아빠는 빨리 갔다 오라고 야단을 치시고 야단을 맞고 심부름을 가면 또 엄마가 화를 내며 나를 붙잡는다.

이럴 때 나는 속이 상해서 울어 버린다.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큰 소리로 더 크게 싸운다. 담배 때문에 싸우는 집은 우리집 뿐인 것만 같다.

우리 아빠는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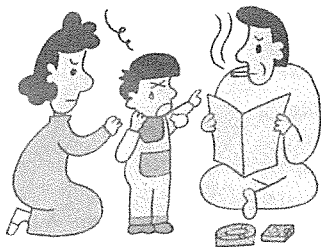
배를 밥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엄마는 담배 연기만 봐도 귀신처럼 무섭다고 후후 불어낸다.

싸우고 나면 아빠는 언제나 엄마한테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을 한다.

누나와 나는 아빠와 이런 약속을 했다. 아빠가 담배를 안 끊으면 우리는 숙제를 안 한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이 아빠한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 아빠는 이제 담배를 끊고 금연을 하신다.

이제 5일 밖에 안된다. 약속을 지켜주는 아빠가 고맙다. **㉞**



아빠의 약

강 승 빈

경기 의정부서 초등학교
2-10

아빠는 바둑을 두신다. 시험을 할 때면 쉬지 않고 담배를 피우신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서 30분동안 나오지 않으신다. 그런 후에 내가 들어가면 지독한 담배냄새와 연기 때문에 나는 코를 잡고 뛰어 나온다.

아빠 몸에서는 담배냄새가 난다. 그래서 아빠는 매일 아침에 목욕을 하신다. 깨끗이 씻고 출근하시지만 집에 오실 때면 다시 냄새가 날텐데,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텔레비전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의 몸 속을 보았다. 늘 어지고 군데군데 구멍난 폐를 가지고 몹시 아파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고 비싼 것을 아빠는, 그리고 많은 아저씨들은 왜 피워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할까?

아빠는 커다란 상자에 나무를 잔뜩 사 오셨다. 뭐냐고 물었더니 담배를 많이 피우면 나쁘니까 이것을 삶아 물을 마시면 해독이 된다고 하시며 생수를 잔뜩 부어 달이셨다.

엄마는 화가 나셨다. 담배를 안 피우면 될 것을 약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느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빠가 담배 피우는 것이 싫다.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내 생각과 같다.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왜 하는 걸까?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담배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면 나부터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㉞**